

2007년 중국애니메이션의 발전방향 - 산업고리 지원이 관건

중국영화보(中国电影报)

전국광과전시청국장회의(全国广播电视厅局长会议)에서 회장 및 대표는 중국애니메이션의 발전에 관한 정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중국애니메이션의 발전방향과 주요임무를 발표하였다. 요약하자면 창의력향상, 방송플랫폼설립, 산업고리지원 등이다.

회의에서 호남성 광전국(广播电视局) 국장 웨이윈뎨(魏文彬)은 《창의력 향상, 방송플랫폼설립-적극적으로 발전하는 호남동만산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중, 웨이윈뎨는 호남동만발전의 기본적인 상황을 소개하였고, 기본경험 및 문제를 정리하였다. 그는 “호남은 몇 년간의 노력으로 좋은 발전성과를 내었다. 창의력이 향상되었으며, “란마오(蓝猫)”, “황금매카툰(金鹰卡通)”, “차오nü와와(超女娃娃)”, 등 정품브랜드를 내놓았고, 동만기업의 발전규모가 확장되었으며, 동만산업시스템이 점차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호남동만수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에, 웨이윈뎨는 3가지 기본경험을 정리하였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동만산업에 대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전문적인 플랫폼을 주로 하고, 종합적인 플랫폼을 부로 하여, 동만 방송플랫폼을 단단히 다진다. 셋째, 시스템을 바로잡고, 위험기금을 받으며, 산업규모를 확장한다. 또한 그는 “호남동만산업이 고속발전에 진입하였고, 경험을 쌓았으며 또한 발전에 제약을 받는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나타냈다. 예를 들면, 첫째, 중국애니메이션은 안정적인 경쟁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수량과 질량에서도 동만카툰 채널운영을 장악하지 못했다. 둘째, 동만 방송 플랫폼이 매우 취약하고, 플랫폼영리방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단계에 있으며, 정책지원 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고리의 각 부분들의 조합이 매끄럽지 못하고, 동만기업이 많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호남은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동만카툰 전문채널을 개국한 성이며, 그 발전성과와 누적된 경험과 아울러 직면한 문제는 한 측면에서는 중국동만산업에 대한 현재의 발전 상황을 나타냈다. 2006년 9월 1일부터 광전총국이 요구하는 모든 카툰방송플랫폼은 황금시간대에 중국애니메이션만 방송해야 하며, 정책상에서도 중국애니메이션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 광전총국은 《2007년광과영시선전공작요점(2007年广播影视宣传工作要点)》에서 “중국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좀 더 유효하게 추진”을 올해 활동요점 중 하나로 여겨, 계속해서 중국애니메이션의 지원을 강화한다. 왕타이화 국장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문화는 중국애니메이션의 아주 좋은 창의적인 소재이며, 이를 이용하여 더 나은 작품을 개발할 수 있고, 중국애니메이션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의 회장과 많은 대표들은 모두 중국애니메이션의 발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애니메이션의 미래발전에 대한 건의를 내놓았다. 그들은 2007년이 올림픽을 맞이하는 1년이며,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애

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로써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올림픽의 힘을 빌려 수출을 할 수도 있고, 해외에 중국애니메이션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나타냈다. 동시에 회장과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정책상의 지원 외에도 중국애니메이션에 대한 발전자금투입을 늘려야한다. 둘째, 단순히 애니메이션제작부문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전체적인 산업고리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방송플랫폼을 조합하고, 콘텐츠생산과 시장마케팅을 서로 결합한다. 넷째, 동만발전의 산업고리를 완벽하게하고, 동만기업 및 동만과생상품의 발전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